



하도를 이용한 오수혈 오행배속 원리 고찰

최인서¹ · 이봉효²

대구한의대학교 한의과대학¹한의학과, ²침구경혈학교실

A Short Review on the Principal of Matching Five-Su-Points to O-Haeng Using Hado

In Suh Choi¹, Bong Hyo Lee²

¹College of Korean Medicine, ²Department of Acupuncture, Moxibustion, and Acupoint, College of Korean Medicine, Daegu Haany University

Objectives : Five transport points are often used in acupuncture treatment. However, there is no clear explanation about the reason why the five transport points are matched five phases in this manner. Therefore, we reviewed the literatures and theses about the principal of matching and researched a new way to understand the reason. **Methods :** We found 8 theses and 3 literatures related to the matching of five transport points to five phases by searching the web sites. And, we reviewed the principal of matching and researched another new way to understand the reason why they are matched so. **Results and Conclusions :** In the viewpoint of the natural state and function of five phases, the start points arising in yin- and yang-meridian are matched to wood and metal respectively. Therefore, well point matches the wood and metal in yin- and yang-meridian respectively. And by following the flow of five transport points, the other points match with fire, earth, metal, water in yin-meridian and water, wood, fire, and earth in yang-meridian.

Key words : five transport points, five phases, hado, five seasons

서론

초보 한의사에게도 접근하기 쉬울 뿐 아니라 효과도 뛰어난 五俞穴은 임상에서 다양하게 응용되는데 오수혈을 이용한 鍼法에는 舍岩鍼法, 平鍼法, 和鍼法, 太極鍼法, 八體質鍼法 등이 있다. 이러한 침법들에서 오수혈을 사용하는 데에는 五行屬性을 파악하여 相生·相剋의 원리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이론적 바탕이 된다. 그런데 井榮俞經合 오수혈의 오행배속에 대해서는 陰經의 경우 각각 木火土金水에 배속되고, 陽經의 경우 金水木火土에 배속된다고만 되어 있을 뿐 왜 그렇게 배속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을 찾아보기

가 어렵다.

오수혈의 오행배속에 대해서 정혈을 음경에서는 목에, 양경에서는 금에 배속시킨다는 것은 <靈樞·本輸>에 처음으로 언급되어 있다¹⁾. 그러나 장부의 이름, 그에 소속된 오수혈의 위치, 명칭 그리고 경의 명칭을 마지막에 나타내면서도 각 정혈에만 그 오행을 배속시킬 뿐, 다른 혈에 대해서는 오행배속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²⁾. 그 후, <難經·六十四難>에서는 兄弟 오행배속과 夫婦 오행배속의 원리로 음경의 정형수경합에는 각각 목화토금수를 배속하고, 양경의 정형수경합에는 각각 금수목화토를 배속한다고 언급되어 있다¹⁾. 그러나 난경의 십구난(男子生於寅, 女子生於申), 삼십삼난(肝得水

Received May 30, 2014, Revised June 10, 2014, Accepted June 17, 2014

Corresponding author: **Bong Hyo Lee**

Department of Acupuncture, Moxibustion and Acupoint, College of Korean Medicine, Daegu Haany University, 165 Sang-dong, Suseong-gu, Daegu 706-828, Korea

Tel: +82-53-819-1828, Fax: +82-53-768-6340, E-mail: rjcsj31@hanmail.net

©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而沈, 木得水而浮, 肺得水而浮, 金得水而沈), 사십년(金生於巳, 水生於申), 사십일년(肝子東方木也, ...去太陰尙近, 離太陽不遠, 猶有兩心, 故有兩葉, 亦應木葉也)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난경에서는 해석이 매끄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행에 억지로 끼워 맞춰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³⁾.

이 때문에 채록선은 오수혈의 오행배속에 있어서 양경이 금에서 시작하고 음경이 목에서 시작하는 원리가 명확히 설명되지 않음을 지적하고, 오수혈을 오행에 끼워 맞추는 것은 억지라며 폐지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했다⁴⁾. 그러나 많은 한의사들이 오행속성을 근거로 하여 임상에서 우수한 효과를 거두고 있음에 따라 오수혈의 이러한 오행배속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⁴⁾ 1983년 맹웅재⁵⁾를 시작으로 오수혈의 오행배속 원리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발표되고 있다.

이에 저자는 오수혈의 오행배속 원리를 탐구함에 있어 현재까지 보고된 여러 접근방법을 조사하고, 부부·형제배속의 원리로 끼워 맞춰 구명하고자 했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오수혈의 오행배속에 대해 새로운 접근을 시도한 결과 약간의 지견을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연구 자료 및 방법

1. 연구 자료

아래의 논문 검색 사이트에서 ‘오행’, ‘오수혈’을 검색하여 관련 논문을 조사하였다.

- (1) 경락경혈학회 홈페이지
- (2) 대한침구의학회 홈페이지
- (3) 대한한의학회 홈페이지
- (4) RISS
- (5) OASIS
- (6) KISS
- (7) NDSL
- (8) DBPIA

2. 위의 방법으로 2014년 3월에 8편의 논문 즉, 오수혈의 오행배속에 관한 연구¹⁾, 영추·소문·난경에 나타난 오수혈의 개념에 대한 고찰²⁾, 난경의 오행생극이론 활용에 대한 고찰³⁾, 오수혈의 오행배속원리에 관한 고찰⁵⁾, 음양오행론의 발생과 그 응용⁶⁾, 역해·편주 황제내경 하권⁷⁾, 역해·편주 황제내경 상권⁸⁾ 황제내경의 오행귀류에 관한 고찰⁹⁾, 하도와 낙서에 나타난 음양오행에 관한 연구¹⁰⁾,

오수혈의 유주방향에 관한 연구¹¹⁾와 3권의 도서 즉, 난경 연구 집성⁴⁾을 조사하여 고찰하였다.

3. 조사된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오수혈의 오행배속에 관하여 고찰하고, 그 원리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였다.

결 과

1. 오행

1) 오행학설에서 오행의 의미

오행학설이란 목화토금수의 다섯 가지 패턴에 의해 대의되는 현상을 파악하는 이론으로, 물질적 요소나 재료 혹은 실체가 아닌 다섯 가지의 작용과 힘, 기능, 순서 그리고 효과를 중요하게 여긴다⁹⁾.

이런 관점에서 오행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木氣는 만물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힘이 집중통일 되어 있는 강력한 기운을 의미하며 수에 뿌리를 둔다. 예를 들면 겨울의 한껏 움추린 기운을 뚫고 봄에 새싹을 틔우는 힘이 목기에 속하고, 하루 중에서는 해가 동쪽에서 떠오르기 시작할 때가 이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목기·春氣·동쪽 등의 귀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유추를 통하여 生長, 升發, 舒暢, 條達 등의 성질이나 작용을 갖추고 있는 만물은 모두 목기로 귀속시키게 되는 것이다.

火氣는 생명이 분열하여 목기 때에 충신했던 기운과 내용이 외관적인 수려와 공허한 허식으로 바뀌는 기운이며 목에 뿌리를 둔다. 화기에는 봄에 싹을 틔운 초목들이 자라면서 처음에 피어난 가지나 잎사귀들의 형체가 무질서하게 흐트러짐과 계절적으로는 여름, 하루 중에는 태양이 남쪽에 있는 더운 때가 해당한다. 이와 같은 유추를 통하여 勝發하고 溫熱하는 작용을 갖춘 만물은 모두 화에 귀속시킬 수 있다.

金氣는 생명력을 수렴하는 기운으로 그 뿌리를 토에 두고 있으며 그 성질은 堅斂을 위주로 한다. 금기의 단계는 목기의 단계 때 외곽이 軟化하였던 것과는 반대로 表揚을 이면으로 수장하려는 최초의 단계이자 외곽이 硬變해지면서 陽氣를 포장하는 단계이다. 금은 무기를 만드는 재료로서 殺傷의 뜻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가을을 추수와 凋落 그리고 해가 지는 서쪽으로 귀류시키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와 같은 유추를 통하여 肅降, 수렴, 청결 등의 작용을 갖춘 사물은 모두 금에 귀류시킬 수 있다.

수장의 두 번째 단계인 水氣는 생명력을 완전히 통일하는 기운이다. 금기의 단계에서는 표면을 수장하는 작용을 하였지만, 수기의 단계에 이르러서는 이면까지 응고하여 天道의 목적을 완수하게

된다. 생명력의 원천이라 할 만한 精과 核은 결코 응고 될 수가 없고 軟性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수는 새 생명의 준비 단계이자 모든 생명력의 기반이 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는 계절적으로 새롭게 준비단계에 들어선 겨울에 해당한다. 또, 하루 중에는 음기가 가장 강한 북쪽에 있을 때를 귀류 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유추를 통해 滋潤, 向下運行, 寒冷하는 만물은 모두 수에 귀류시킬 수 있다.

土氣는 기운이 운행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 날 수 있는 대립과 모순을 조화롭게 하는 기운으로 특히 분열의 과정을 마치고 통일하는 과정에서 전환하는 長夏에 주도적으로 작용을 한다. 토기는 양도 음도 아닌 절대 中和之氣로서 중도의 역할을 수행한다. 토기는 만물을 키워내는 바탕이 되고 나머지 四行을 움직이게 한다. 이러한 이유로 토는 반드시 장하에 한정하여 배속되는 것이 아니고, 사행의 각각에 배치되어 있다. 이것을 시간적으로 보면 未土(장하)가 만물의 성장을 성숙시키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지만, 辰·戌·丑·未의 시간이 모두 토의 작용을 하는 것이다. 또한 중앙이란 방위는 사방의 주체가 되며 십자의 중심 교차점으로 토를 이에 배속시킴이 타당하다. 이와 같은 유추를 통하여 受納, 承載, 生化의 작용을 갖춘 만물은 모두 토에 배속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이 다섯 가지 세력의 편차로써 인간과 자연의 변화를 설명하는 것이 오행학설이다⁹⁾.

2) 河圖에 나타난 음양오행

하도와 洛書는 음양오행이론을 가장 최초로 그리고 가장 완전하게 제시하고 있는 문헌이다¹⁰⁾.

하도와 낙서는 모두 흑원과 백원으로 수를 표현하고 있는데, 흑원은 陰數를, 백원은 陽數를 나타낸다. 1에서 10까지의 자연수의 수열에 있어서 1에서 5까지를 生數라고 하고, 6에서 10까지를 成數라고 한다. 생수란 창조의 근본이 되는 수로서 보이지 않는 생명의 본질을 나타내고 만물의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에 命數라고도 한다. 성수란 사물을 完成하는 수로써 완성된 사물은 형체를 이루므로 성수는 物數 혹은 形數라고도 한다.

우주의 운동은 水火가 변화의 근본을 이루는데, 이것을 주역에서는 坎離작용이라고 한다. 특히 수화 중에서도 창조의 근원을 이루어 생명의 뿌리가 되는 것은 수이다. 그래서 1은 오행에 있어 수에 배속이 되며, 방위로는 북방에, 계절로는 겨울이 수에 속한다. 화는 수와 대립되는 성질을 가지며, 수가 극도로 분열 발전된 대칭축에 위치하기 때문에 화는 2에 배속된다. 방위로는 남방, 계절로는 여름이 화에 배속된다. 목은 오행의 변화에서 수가 화에 이르러까지 발전하는 전반기의 과정에 속하는 중간과정으로 생명의 발전을 주도하기 때문에 3이 목에 배속된다. 방위로는 동방, 계절로는 봄이

목에 응한다. 만물은 생겨나서 완성의 과정을 거치게 되며, 화에서 수로 통일되는 수렴 과정의 후반기 정중에 위치하는 것이 금이다. 그러므로 순서에 있어 4는 금에 배속이 된다. 방위로는 서방이, 계절적으로는 가을이 금에 귀류된다. 그리고 토가 5에 배속이 되는데, 토는 수화목금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저절로 이루어지는 기운으로 중화의 덕을 갖추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토는 수화목금의 변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대립과 상극의 모순을 조화하는 성질이 있다. 방위로는 중앙이, 계절로는 장하가 토에 귀류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펴본 1(수), 2(화), 3(목), 4(금)의 생수는 창조의 정신만 지니고 있을 뿐 만물을 현실적으로 화생시켜내지는 못한다. 그러므로 이들은 자신을 실제적으로 화생시켜줄 중매자를 필요를 하는데 이 역할을 하는 것이 5토이다. 이 5토의 중매역할로 인해 정신적·기능적 역할을 하는 1(수)는 5+1=6(수)가 되어 형체를 이루게 된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2화는 5토를 만나 7화의 실체를 이루게 되며, 3목은 5토를 만나 8목의 형체를, 4금은 5토를 만나 9금의 형체를 이루게 된다. 또한 순수 精氣였던 5토 역시 自化하여 10토를 이룬다. 이렇게 하여 1·6 수, 2·7 화, 3·8 목, 4·9 금, 5·10 토의 결합이 이루어지고, 각각이 속하는 방위에 표시된 것이 하도이다. 하도에서는 생명의 본질을 이루는 생수가 안쪽에 위치하고 완성된 사물의 형체를 이루는 성수는 바깥쪽에 위치한다. 하도는 生成의 體를 나타내고 있는데, 생성의 체를 이루는 것에 대하여 주자는 하늘은 1로써 수를 생하고 땅은 6로써 수를 이루며, 땅은 2로써 화를 생하고 하늘은 7로써 화를 이루며, 하늘은 3으로써 목을 생하고 땅은 8로써 목을 이루며, 땅은 4로써 금을 생하고, 하늘은 9로써 금을 이루며, 하늘은 5로써 토를 생하고, 땅은 10으로써 토를 이루니, 이것이 이른바 각각 합이 있다는 것이라고 하였다 (Fig. 1). 즉, 하도는 천지창조의 설계도로서 생성의 기본원리를 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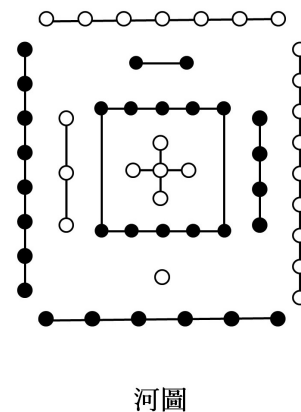


Fig. 1. The figure of Hado.

고 있는 체에 해당 되는 것이다¹⁰⁾.

2. 오수혈

1) 오수혈의 의미

《太素·권십일·본수》에서는¹¹⁾ 정(井)의 의미에 대해 “井者 古者以泉源出水之處 爲井也 屈地得水之後仍以本爲名故 曰井也”(정이라는 것은 옛날에 샘물이 솟아나오는 곳을 정이라 했는데, 땅을 파서 물이 나온 후에도 여전히 본래의 명칭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정이라고 한다.)고 하였고, 《난경집주·육십삼난》에서 양주가 말하길 “凡臟腑 皆以井爲始 井者 謂谷井爾 非謂掘作之井 山谷之中 泉水初出之處 名之曰井 井者 主出之義也”(모든 장부경맥이 다 정혈로부터 시작하니 정이라는 것은 골짜기의 샘물이지, 사람이 파서 만든 우물을 의미하지 않는다. 산골짜기의 샘물이 처음 나오는 곳을 정이라 했으니, 정은 저절로 솟아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처음 脈氣가 시발하는 곳이다.

《난경·육십팔난》에서는 “溜는 流로서 ‘흐른다’라는 동일한 의미이다.”라고 하였고, 마시는 형에 대하여 “榮者 釋文爲小水也”(석문이라는 책에서 형은 작은 물이라고 하였다.)고 하였고, 장개빈은 “急流口溜 小水曰榮 脈出于井而溜于榮 其氣尙微也”(급히 흐르는 것을 류라고 하며 작은 물을 형이라고 하니 정에서 맥이 나와 형에서 흐르니 그 기운이 아직 미약한 것이다.)라 하였으니 형이라 함은 샘에서 나온 물이 급경사 속에서 실개천을 이루어 급히 흐르는 모습을 뜻하는 것이다.

마시는 注와 輸에 대하여 “輸者 注此而輸運之也”(수라 함은 이곳에 注入되었다가 다시 보내지는 것을 일컫는다고 하였고, 장개빈은 “注 灌注也 輸 輸運也 脈注于此而輸彼 其氣之漸盛也”(주라는 것은 관개하듯이 물을 대는 것이고 수라는 것은 보내는 것이니 맥이 이곳에 주입되었다가 저쪽으로 보내지므로 그 기운이 점차 성해진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수라는 것은 실개천이 위로부터 흘러와서 작은 웅덩이에 고였다가 그 웅덩이를 채운 후에 다시 흘러가는 모습을 형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의학에서 輸·脈·俞의 세 글자는 통용되는데, 고인들이 脈穴을 해석할 때 輸의 뜻으로 해석한 것은 脈穴의 특징이 맥기를 모았다가 다시 흐르게 하는 것이 마치 화물을 모았다가 다른 곳으로 보내는 것처럼 잠시 쉬면서 기운을 축적했다가 다시 흐른다는 의미를 취한 것이다.

서영태는 행과 경에 대하여 “行 通條遠貫也”(행이라 함은 쪽 뻗은 길을 통해 멀리 가는 것이다.)라고 하였고, 마시는 “經 從此而經過之則爲經穴”(경은 수혈로부터 출발하여 지나가는 것이다.)라고 하였으며, 장개빈은 “脈氣大行 經營于此 其正盛也”(맥기가 크게 행하여 이곳에서 일을 경영하는 것이니 그 기운이 아주성한 것을

뜻한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경이란 수에서 축적했던 기운을 바탕으로 맥기가 큰 내를 통해 힘차게 뻗어나가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난경집주·육십삼난》에서 왕구사는 합과 입에 대하여 “經行既達 合會於海 故名之曰合 合者 會也”(지나가서 이미 이르러 바다와 합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합이라고 한다.)라 하였는데 이는 出溜注行入이 샘물이 솟아서 실개천을 이루어 웅덩이에 모였다가 다시 흘러 궁극적으로 바다로 흘러가는 것을 의미한다. 《圖注 팔십일난경·육십팔난》에서 장세현은 “經過於此 乃入於臟腑 與衆經相會 故謂之合”(이곳을 지나 장부로 들어가 여러 경맥과 서로 합해지므로 합이라 한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사지말단에서 시작한 맥기가 합혈에서 本經의 경맥과 상합하기 때문이다.

위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정형수경합의 오수혈 맥기의 흐름을 물의 흐름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다. 물의 흐름과 같이 맥기가 由淺入深, 從小到大 하는데 정혈은 地下出泉으로 맥기가 淺少하며, 형혈은 水成小流하여 맥기가 稍大하고, 수혈은 灌注轉輸하여 맥기가 漸盛하며, 경혈은 爲成長流하여 맥기가 正盛하고, 합혈은 衆經과 會合하고 맥기가 深大한 것을 의미한다¹¹⁾.

2) 오수혈의 오행배속에 관한 현재까지의 견해

첫째, 《난경·육십삼난》에서는³⁾ “음경의 정혈은 목이고, 양경의 정혈은 금이다. 음경의 형혈은 화이고 양경의 형혈은 수이다. 음경의 수혈은 토이고 양경의 수혈은 목이다. 음경의 경혈은 금이고 양경의 경혈은 화이다. 음경의 합혈은 수이고 양경의 합혈은 토이다”라고 하여 정형수경합의 오수혈을 음경에서는 목화토금수의 순서로 배속시켰고, 양경에서는 금수목화토의 순서로 배속시켰다. 이에 대하여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으나 《난경》에서는 이것을 剛柔陰陽으로 이해하였다. “이는 강유의 일인 것이다. 양경의 정혈은 庚金이고 음경의 정혈은 乙木이다. 음경의 정혈은 을인데 을은 경의 유이며, 양경의 정혈은 경인데 경은 을의 강이다. 음경의 정혈을 목이라고 한 것은 을이 목에 해당하기 때문이고, 양경의 정혈을 금이라고 한 것은 경이 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오행의 부배속과 형제배속을 응용한 것이다. 오행의 형제배속이란, 천간을 오행에 배속시킨 것인데, 甲乙은 목에 합하고, 丙丁은 화에 합하고 戊己는 토에 합하고 庚辛은 금에 합하고, 壬癸는 수에 합한 것을 말한다. 부배속을 해보면, 甲己는 토에 합하고 乙庚은 금에 합하고 丙辛은 수에 합하고 丁壬은 목에 합하고 戊癸는 화에 합하게 된다.

《난경·육십삼난》에서는 오수혈이 정으로 시작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정은 동방의 목에 속하니, 만물이 처음 발생하는 때이다. 만물이 발생할 때에는 반드시 봄의 기운에 의지하므로 歲數는 봄에

시작하고, 日數는 甲에서 시작한다. 이러한 이유로 정을 시작으로 삼은 것이다”라고 하여 정혈을 동방·春木에 배속시키고 천간의 갑에 배속시켰다. 이것은 정혈을 갑을목, 형혈을 병정화, 수혈을 무기토, 경혈을 경신금, 합혈을 임계수에 배속시킨 것이다. 오장이 인체의 중심으로 생각하였으므로 먼저 이것을 오장에 적용하였다. 오장은 음에 속하므로 천간 중에서 陰干을 취하여, 정혈은 을목이, 형혈은 정화가, 수혈은 기토가, 경혈은 신금이, 합혈은 계수에 각각 배속되었다. 그런데 을목은 경금과 부부배속이므로, 양경의 정혈은 경금에 배속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정화는 임수와 부부배속이므로 양경의 형혈은 임수에 배속되고, 기토는 갑목과 부부배속으로 양경의 수혈은 갑목에 배속되고, 신금은 병화와 부부배속하여 양경의 경혈은 정화에 배속되고, 계수는 무토와 부부상합하여 양경의 합혈은 무토에 배속된 것이다. 이것은 <난경>이 오장과 육부, 양경과 음경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이해하고 있음을 알게 해준다.

둘째, 오장과 육부의 기의 운동 특성을 이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황제내경의 본수이론에 대한 연구>에서 이용범은 “그 완성된 주기를 음의 측면에서 관찰하였을 때는 양이 처음으로 발현되는 시점으로부터 그 시기의 출발점을 삼아야 할 것이며, 양의 측면에서 관찰하였을 때는 음이 처음으로 발현되는 시점으로부터 그 시기의 출발점을 삼아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음의 측면에서 계절을 관찰하였을 때는 양이 처음 발현되는 시기 즉, 봄에 만물의 양기가 사동하는 시점으로부터 그 주기의 출발점을 삼아야 하고, 양의 측면에서 계절을 관찰할 때는 음이 처음으로 발현되는 시기 즉 가을의 서리 내리고 낙엽이 떨어지는 시기로부터 그 주기의 출발점을 삼아야 한다. 따라서 본수에서 陰部의 음적인 작용은 오행의 봄에 해당하는 목으로부터 시작되므로 정혈이 목에 배속되는 것이고, 養部의 양적 작용은 오행의 가을에 해당하는 금으로부터 시작되므로 정혈이 금에 배속된다.”고 하였다. 또 <난경의 오행生剋이론 활용에 대한 고찰>에서 정창현은 “오장은 정을 저장하는 것이 최종 목표이므로 수로 끝이 나는 것이고, 육부는 수곡을 수납하고 운화는 것이 최종 목표가 되므로 토로 끝이 나는 것이다. 육부는 수렴을 하였다가 펼치는 양상을 보이고, 오장은 펼쳤다가 갈무리하는 양상을 보인다. 중요한 점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가이다. 오장의 최종 목표는 정을 갈무리 하는 것이므로 일단 펼치는 것이고, 육부의 최종 목표는 수곡으로부터 영양분을 흡수하여 전신에 공급하는 것이므로 일단 수렴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셋째, 오행의 상생상극이론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오수혈은 양경에서 금수목화토 순서로, 음경에서는 목화토금수의 순서로 모두 오행상생 순서로 배속되어 있다. 또 동일한 오수혈의 오행속성을 살펴보면, 양경의 혈이 음경의 혈을 극하는 관계임을 알 수 있다. 양

경의 정혈은 금이고, 음경의 정혈은 목인데, 금극목(상극)이 되는 것이다³⁾.

넷째, 陽體陰用과 陰體陽用의 원리로¹⁾ 해석할 수 있다. 양체음용이란 본체가 양이면 작용은 음으로 하고, 음체양용이란 본체가 음이면 작용은 양으로 한다는 의미이다.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 體用의 관계에서 각각이 속하는 음양이 반대가 된다는 것이다. 오장육부는 체이고, 경맥은 용이니 맥기가 시작하는 오장(음)의 정혈은 양인 목에서 작용이 시작하는 것이고, 육부(양)의 정혈은 음인 금에서 작용이 시작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素問 陰陽應象大論>에서 “水火者 陰陽之徵兆也 金木者 生成之終始也”라고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오행에서 수화는 체가 되며, 금목은 용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오장의 용인 경맥에서 정혈이 목·금으로 배속된다는 것이다¹⁾.

고찰

저자는 기존의 오수혈 오행배속 원리에 대한 설명에서 채륙선의 말처럼 억지로 끌어들여 맞추는 느낌이 드는 것은 그동안 아무런 의심 없이 난경의 剛柔相制 방식의 설명을 답습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오행배속 원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함을 느끼게 되었다.

오행을 가장 최초로 그리고 가장 완전하게 제시하고 있는 문헌에는 하도와 낙서 두 가지가 있다¹⁰⁾. 그런데 저자가 낙서가 아닌 하도에 집중한 이유는 하도가 천지창조의 설계도로서 생성의 기본 원리를 담고 있는 체에 해당되므로¹⁰⁾, 오수혈의 오행배속 원리를 탐구하는데 있어서는 태초에 우주가 만들어진 원리를 담고 있는 하도를 이해하는 것이 그 후에 일어나는 변화를 설명하는 낙서를 이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할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하도에서 생수는 창조의 근본이 되는 수로 아직 체를 이루기 전의 본성을 나타내고, 성수란 체를 이룬 완성된 사물을 뜻한다. 그리고 하도에 표시된 성수의 위치는 완성된 체의 위치로 나타나 있고, 체의 본성을 의미하는 생수는 성수의 안쪽에 위치한다(Fig. 1)¹⁰⁾. 생성과 성체에 대하여 주자는 “하늘이 일로 수를 생하며 땅이 육으로 수를 이루고, 땅이 이로 화를 생하며 하늘이 칠로 화를 이루고, 하늘이 삼로 목을 생하며 땅이 팔로 목을 이루고, 땅이 사로 금을 생하며 하늘이 구로 금을 이루고, 하늘이 오로 토를 생하며 땅이 십으로 토를 이룬다.”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하도의 원리로 대우주인 자연을 관찰해 보면 하늘은 위에 있으니 火體이고, 땅은 아래에 있으므로 水體이지만, 그 성질로 이해하면 오히려 높이 오를수록

온도는 낮아지고(水性) 땅 속 깊이 들어갈수록 온도가 높아진다(火性). 이것은 지구의 대기와 내핵을 비교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또한 소우주에 해당하는 인체에서도 하도의 원리를 볼 수 있는데, 화체에 해당하는 心이 위에 위치하고 수체에 해당하는 腎이 아래에 있다. 肝과 肺를 비교하면 木體에 해당하는 간은 오른쪽에, 金體에 해당하는 폐는 상대적으로 왼쪽에 위치한다. 만약에 심장과 신장이 각각 화체·수체인 동시에 화성과 수성을 지니고 있다면 심장보다 위에 있는 인체의 기혈은 위로만 치솟을 것이고 신장보다 아래에 있는 인체의 기혈은 아래로만 내려가게 될 것이다. 살아있는 생명체는 모두 水火既濟의 형상을 이루어 정상적인 순환을 하는데 이렇게 완전히 분리가 된다면 곧 죽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심장과 신장은 화체·수체에 해당하지만, 그 성질은 수성·화성으로 인체 기혈순환이 순조롭게 되도록 한다. 그리고 <소문 刺禁論篇>에서 “肝生於左, 肺藏於右”라고 언급되어 있는데⁷⁾, 여기서 간과 폐는 그체가 아닌 작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실제 해부학적인 장기의 위치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따라서 인체와 자연 그리고 주자의 언급을 고찰해보면 오행의 본성이 발생하는 곳과 체를 이루는 곳이 대립되는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하도를 체가 아닌 작용의 본성을 위주로 나타내보면 Fig. 2처럼 나타낼 수 있다.

태초에 우주가 만들어질 때와 현재 지구를 비교해보면 태초의 우주는 Fig. 3과 같이 수와 화를 잇는 선이 세로축이 되고, 금과 목을 잇는 선이 가로축으로 표현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지구의 모습은 오른쪽으로 약 23.5° 기울어져 있으므로 지구에서의 세로축을 다시 그려보면 Fig. 3의 점선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음이 극에 달하면 양이 생하고, 양이 극에 달하면 음이 생하므로 태초의 우주에서는 수성의 영역에서 양이 생하고 화성의 영역에서 음이 생하며,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지구에서 양은 수와 금의 영역

에서 생하고 음은 화와 목의 영역에서 생하게 된다. 그런데 수와 금, 화와 목의 관계는 금생수, 목생화의 상생관계이므로 금과 목이 각각 수와 화의 모가 되니 음은 목에서, 양은 금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저자는 이러한 원리로 인해 음경의 정혈은 목에 배속되고, 양경의 정혈은 금에 배속되는 것이라고 사료된다. 또 천지자연의 시간은 봄, 여름, 장하, 가을, 겨울 순서로 끊임없이 흐르며 이것을 오행에 배속해보면 각각 목화토금수가 된다. 즉, 자연의 시간적 순서를 오행으로 나타내면, ... → 목 → 화 → 토 → 금 → 수 → 목 → 화 → ...가 된다. 앞서 언급한 정형수경합의 의미로부터 볼 때 순차적인 물의 흐름과 같이 인체의 맥기는 정 → 형 → 수 → 경 → 합 순서로 흘러가므로 음경에서 정이 목에 배속되었으면 형은 그 다음에 속하는 화에 배속되고, 같은 원리로 수혈은 토에, 경은 금에, 합혈은 수에 배속된다. 양경에서는 정혈이 금에 배속되므로, 그 다음 순서인 형혈에는 수가, 수혈에는 목이, 경혈에는 화가, 합혈에는 토가 각각 배속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론

저자는 오수혈의 오행배속 원리에 대해 새로운 시각에서 탐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오수혈의 오행배속에서 목화토금수는 용적인 의미이므로 천지창조의 설계도인 하도의 위치를 작용 위주로 살펴보면 수가 위에, 화가 아래에, 금이 오른쪽에, 목이 왼쪽에, 토는 중앙에 놓인다 (Fig. 2).
2. 그런데 태초의 우주와 달리 지구는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므로(Fig. 3) 정혈이 음경에서는 목에, 양경에서는 금에 배속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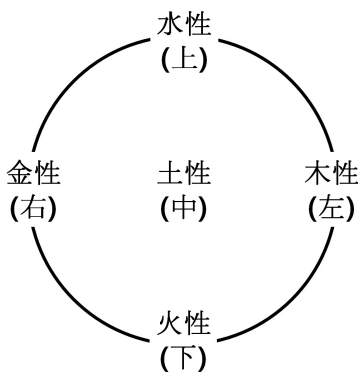


Fig. 2. The figure of Hado re-arranged focusing on the fun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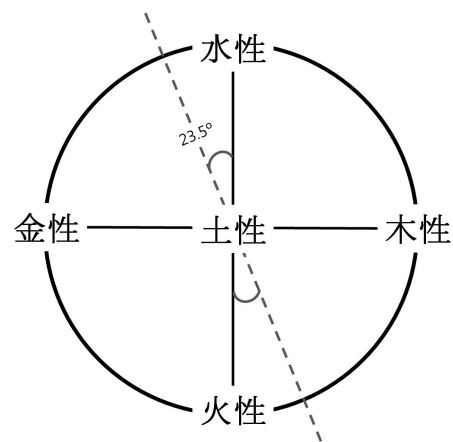


Fig. 3. The figure of Hado considering tilted earth's axis.

것이고, 인체의 맥기는 정 → 형 → 수 → 경 → 합의 순서로 흐르며 이러한 흐름은 시간 의존적이므로 정형수경합이 음경에서는 목화 토금수 순서로, 양경에서는 금수목화토 순서로 배속되는 것이라고 사료된다.

References

1. Yoon CY, Lee JT. A Review on the O-haeng match of five-su-point.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Classics. 2011 ; 24(2) : 73-80.
2. Ahn CW. FiveSu-point in Yingshu, Sumun and Najing. Thesis for the degree of Master, Dongeui University. 2007
3. Jung CH. A Review Study on the practical use of O-haeng Saenggeuk theory in Nan Gyeong.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Classics. 2004 ; 17(1) : 28-35.
4. Yoon CY, Kim YJ. Nan Gyeong research compilation. Daejeon : Ju Min Publishing Company. 2002 : 859.
5. Meng WJ. A Study of O-haeng's matching principal of FiveSu-point. Journal of Korean Medicine. 1983 ; 4(1) : 37-9.
6. Yoon CY. Genesis and application of Yin Yang O-haeng theory.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Classics. 2006 ; 19(4) : 212-8.
7. Lee KW. Pyeon Ju Yeok Hae Hwang Je Nae Gyeong So Moon(下). Seoul : Yuh Kang Publishing Company. 2007 : 746-1082.
8. Lee KW. Pyeon Ju Yeok Hae Hwang Je Nae Gyeong So Moon(上). Seoul : Yuh Kang Publishing Company. 2007 : 409-13.
9. Kim HK, Hong WS. A Study of Hang Jae Nae Kyung's O Haeng Kui Ryoo.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Classics. 1995 ; 9 : 654-99.
10. Yoon CY. A Review on the Yin Yang O-haeng in Hado and Nack Suh. Journal of Hyun-Gok academic society. 1997 ; 2(1) : 145-62.
11. Yoon CY, Lee JT. A Review on the Flowing way of Five Su-point.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Classics. 2011 ; 24(2) : 65-72.